



tvN '채널 심오야' 등 예능프로그램의 공식 SNS 계정(왼쪽 사진)이 재미 있는 게시물로 시청자와 소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이유(가운데 사진)와 손상연(맨 오른쪽)은 각각 출연한 tvN '호텔델루나'와 SBS '라켓소년단'의 캐릭터로 SNS 계정을 운영해 화제다.

잘 키운 SNS 계정, 10편의 광고보다 낫다

'채널 심오야' 직장인 공감글 인기 아이유·김혜수는 캐릭터 빙의 유명 '라켓소년단' 손상연 촬영 풍경 담아

"아~ 출근 싫다.(판짓중)" "칼퇴"하려고 했는데..."

tvN 유튜브 콘텐츠 '채널 심오야'의 공식 SNS에 최근 올라온 한 게시물의 내용이다. 직장인이자 누구나 공감할 만한 친근한 말투로 작성돼 '친구 계정인 줄 알았다'는 댓글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판짓 더 해주세요" "나도 퇴근하고 싶다" 등 공감과 응원의 댓글이 줄줄 달리면서 SNS는 단박에 '소통의 장'이 됐다.

해당 계정은 현재 방송 중인 '송민호의 파일럿' '악마는 정남이를 입는다' 등을 연출한 나영석 PD의 각종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설 이후

시청자 소통 창구로 눈길을 끌고 있다. 계정 운영자가 직접 이벤트도 열고, 이용자와 '맛팔'을 하면서다. 덕분에 SNS상에서 '시보야'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41만여 팔로워를 보유한 '스타 계정'이 됐다. 계정으로 모은 화제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알리는 계기로 이어진다.

SNS의 파급력이 날로 커지면서 '잘 키운' SNS 계정이 10편의 광고보다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하는 셈이다. 이에 많은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제작진도 저마다 SNS 계정을 개설해 시청자 사진 사로잡기에 나섰다.

● '프로그램 색깔 잘 드러내야'

'시보야' 계정을 운영하는 tvN 마케팅팀 이민환 씨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용자와 소통하고 있다. 출연자들의 모습을 담은 촬영현장 사진을 아껴냈다 선물처럼

'톡' 올리기도 한다. 5일 이 씨는 "공식 계정이지만 '공식'답지 않은 모습이 특징"이라며 "5분 분량의 예능프로그램 등 정형화된 방송의 틀을 깬 '채널 심오야'의 색깔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계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나영석 PD가 직접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서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를 강조해 제작진의 개성이 뚜렷하다. 이용자들로부터 사진 찍는 노하우를 전수 받는 과정을 게시물로 생생하게 전해 눈길을 끈 이 씨는 "시청자와 '함께 노는' 과정으로 채널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며 "SNS 계정도 시청자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새 콘텐츠로 녹여내는 방향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 아이유·김혜수도 '캐릭터에 빙의'

톱스타들도 저마다 출연하는 드라마 속 캐릭터를 이용해 SNS로 시청자와

소통하고 있다.

앞서 아이유는 tvN '호텔델루나'의 장만월 캐릭터로 SNS를 만들어 게시물을 꾸준히 올렸다. 단호하고 재치있는 말투를 그대로 재현해 시청자들의 큰 반응을 모았다. 김혜수도 SBS '하이엔나' 방영 기간 자신의 SNS에 정급자 캐릭터로서 게시물을 올렸다. 드라마가 막을 내린 지 1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도 게시물에는 "장만월 사장님 보고 싶어요" "정급자 변호사님 파이팅!" 등 관련 댓글이 달리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SBS '라켓소년단'의 손상연도 극중 캐릭터인 방응담으로 SNS를 운영 중이다. 중학생답게 톡톡 튀는 단어를 쓰는 것은 물론 드라마 속 역할처럼 구수한 사투리로 촬영현장의 풍경을 담아내 인기다. 시청자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개설 한 달여 만에 6만여 명의 '인친'(SNS 친구)을 모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백지영 '제2의 전성기'

이홍기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리메이크 예능 게스트 입담·유튜브 '완전 백지영' 대박



백지영

가수 백지영이 다양한 영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제2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본업인 가수 활동과 예능프로그램은 물론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까지 무대를 확장하며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특히 기존 '센 언니' 캐릭터에서 '허당 미' 가득한 친근함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동료 가수들과 잇따라 협업하고 있다.

백지영은 올해 가수 데뷔 22주년을 맞아 신곡을 발표하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는 7일 JTBC '라켓소년단'에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의 리메이크 버전을 선보인다. 원곡은 보컬그룹 포맨이 박정현과 부른 애절한 발라드 곡으로, 2006년 발매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에 선보이는 리메이크 버전은 백지영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이홍기의 허스키한 음색이 만나 완성됐다. 편곡은 백지영의 '다시는 사랑하지 않고, 이별에 아파하기 싫어'와 '거짓말이라도 해서 널 보고 싶어'를 작곡한 도코가 맡았다.

앞서 백지영은 옥택연과 '내 귀에 캔디', 송유빈과 '새벽 가로수길', 웅성우와 '아무런 말들도' 등을 발표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이번에는 이홍기와 호흡을 맞추면서 '컬래버레이션'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예능 감각'도 무르익었다. KBS 2TV '1박2일 시즌4', JTBC '내가 나로 돌아가는 곳-해방타운', tvN '꼭씨네 LP바'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입담을 자랑하고 있다.

백지영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무대는 유튜브이다. 대중이 가장 관심을 갖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완전 백지영'을 개설해 '완전 모르는 지영'이라는 콘셉트로 자신의 소박한 일상을 공개하고 있다. 그는 "유튜브에 대해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영이 백지영이 초고속 유튜브가 되었다"고 자랑했다. 팬들도 그에 대한 호감을 드러내고 있다. 덕분에 백지영은 최근 채널 구독자 10만명을 넘겨 '실버 버튼'을 받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할리우드엔 신선한 소재 '케이팝'...영화 제작 붐

'섬웨어 온리...' 케이팝스타와의 로코 '서울 걸즈' 케이팝 오디션 해프닝 그려

케이팝이 할리우드의 신선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케이팝과 케이팝 스타의 이야기를 내세운 영화가 잇따라 기획·제작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 이면서도 최대 규모의 '영화공장'이라 할 만한 할리우드의 시선이 케이팝으로 향하는 것은 그만큼 케이팝이 구축해온 세계적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

최근 할리우드 리포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는 케이팝 스타의 사랑을 그리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제작한다. 한국계 미국작가 모린 구의 2019년 소설 '섬웨어 온리 위 노우(Somewhere Only We Know)'를 영화화한다. 소설은 '하트

비트'라는 세계적 히트곡을 지닌 케이팝 톱스타 렉키와 타블로이드 매체의 사진기자가 흥분을 배경으로 펼쳐는 사랑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 '더 허슬'과 '어쩌다 로맨스' 등으로 낯익은 배우 레벨 윌슨도 케이팝 소재 삼은 영화 '서울 걸즈(Seoul Girls)'로 연출 데뷔한다. 한국계 미국인 여고생과 친구들이 세계적인 케이팝 그룹의 오프닝 무대에 오를 가수를 뽑는 오디션에 참여하면서 겪는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리는 코미디 영화로 알려졌다. 레벨 윌슨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네 소녀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걸그룹'이란 단어를 올렸다.

이에 앞서 할리우드의 유력 스튜디오인 소니픽처스도 올해 3월 케이팝 걸그룹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애니메이션 제작 소식을 알렸다. '케이팝:데몬 헌터스(K-Pop: Demon

n Hunters)'라는 제목처럼 케이팝 걸그룹이 악의 무리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 같은 할리우드의 새로운 시선은 그룹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엑스, 트와이스 등 스타들의 활약에 힘입어 구축한 케이팝의 세계적인 위상에 기댄 흐름이다. 실제 케이팝 스타들이 연기자로 등장하지는 않는 대신, 한국계 미국 제작 스태프가 참여해 음악은 물론 한국문화와 관련한 요소도 담아낼 것이라는 관측을 자아낸다. '섬웨어 온리 위 노우'는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의 미국드라마화를 주도한 한국계 라나 조가 제작자로 참여한다. '케이팝:데몬 헌터스'도 소니픽처스 출신 한국계 매거진 제작에 나선다. 케이팝의 팬이라는 매거진 강은 미국 영화전문지 버라이어티를 통해 자신의 작품이 '케이팝과 나의 뿌리인 한국에 보내는 러브레터'라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케이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영화 '섬웨어 온리 위 노우'의 포스터. 사진제공 | 넷플릭스

연예뉴스 HOT 3

신세경, 아이유와 한솔밥...이담엔터와 계약



신세경

배우 신세경이 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한솔밥을 만난다. 5일 방송가에 따르면 신세경은 최근 19년간 몸담은 나무엑터스와 맺은 전속계약을 최근 마무리하고, 아이유가 소속된 이담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경은 1998년 가수 서태지의 '레이크5' 포스터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해 연기 활동을 해왔다. 2009년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킴', 2015년 SBS 사극 '육룡이 나르샤' 등을 주연했다. 2018년 tvN '국경 없는 포자' 등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올해 2월에는 JTBC 드라마 '런 온'을 내놨다.

뮤지컬 '레드북' 출연진 음성...차지연만 확인



차지연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그가 출연하는 뮤지컬의 동료 배우들이 관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5일 뮤지컬 '레드북' 측은 "출연 배우와 스태프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 이날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수 아이비·김세정·SF9 인성 등도 관련 검사를 받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종로구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레드북'은 전날 차지연이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아 뮤지컬 공연을 취소했다.

강다니엘, 엠넷 예능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MC



강다니엘

가수 강다니엘이 엠넷 예능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진행자로 나선다. 5일 엠넷은 "강다니엘이 8월 중순 방송하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MC를 맡는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걸스합합, 워킹, 락킹, 크럼핑 등 다양한 장르의 스트리트 댄스를 추는 8팀의 여자 댄스 팀이 벌이는 서바이벌 경연을 다룬다. 강다니엘은 제작진을 통해 "최정상급 댄서들의 무대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설렌다"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권영찬 책임프로듀서는 "케이팝 안무를 만들고 이끄는 댄스 크루들을 케이팝 팬들에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퀸' 서현진-'연기대상' 김동욱이 만났다

tvN 로맨스 '너는 나의 봄' 5일 첫방 호텔 매니저와 정신과 의사 이야기

'로코 퀸'과 '연기 대상'이 만났다. 로맨스 장르에서 강세를 보인 연기자 서현진과 2019년 MBC 연기대상을 품에 안은 김동욱이 tvN 새 월화드라마 '너는 나의 봄'을 내놓는다.

5일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는 저마다 아픈 과거를 가진 주인공들이 한 건물에 거주하게 되면서 서로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서현진은 어릴 적 머문 강릉의 한 여관을 동경해 호텔 컨시어지 매니저가 된



연기자 서현진(왼쪽)과 김동욱이 5일 온라인으로 열린 tvN 새 월화드라마 '너는 나의 봄'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tvN

강다정 역을, 김동욱은 정신과 의사 주영도 역을 맡아 따뜻한 로맨스를 펼친다. 그간 내놓은 주연 드라마들을 통해 강한 개성을 드러내 온 이들의 '시너지'가 일찌감치 최대 시청 포인트로 꼽힌다.

서현진은 tvN '또 오해영'을 통해 '로맨스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SBS '사랑의 온도', JTBC '뷰티 인사이드' 등을 연이어 성공시켰다. 김동욱은 OCN '손 더 게스트'와 같은 공포물부터 MBC '그 남자의 기억법'까지 장르를 넘나들면서 인기를 높였다. 근로감독관의 이야기로 기업 '갑질 논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녹인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으로 대상까지 거머쥐었다.

두 사람의 조합은 드라마 제작진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존재다. 첫 방송에 앞서 이

날 오후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연출자 정지현 PD는 "더 이상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 연기자들"이라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서현진과 김동욱도 "이렇게 좋은 파트너를 연기 쉽지 않다"는 생각으로 출연에 임했다고 밝혔다.

서현진은 "'로코 퀸'이라는 수식어가 부담스럽기도 하다"면서도 "따뜻한 대본에 '혹 날여서' 출연한 만큼 시청자에게도 깊이 닿는 이야기를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김동욱 또한 "전작인 '그 남자의 기억법'과 비슷한 색채로 보일 수 있어 걱정했지만, 이번에는 감정의 치유와 사랑에 더욱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서현진을 통해 '멜로 장인'이라는 수식어를 새롭게 얻고 싶다"는 포부도 전했다.

유지혜 기자